

협회소식/업계동정

상근회장에 金榮鎭씨 선출 유가공협회, 정기총회개최

지난 2월 25일 한국유가공협회 제 7대 회장(상근)에 金榮鎭씨가 취임했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全應璜 회장 후임에 金榮鎭전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洪源植 남양유업사장, 朴熾柱매일유업사장, 李銀鮮한국야쿠르트유업사장, 申鍾薰빙그레사장, 閔丙憲해태유업사장을 선임했다.

또 이사에는 趙東來롯데햄·우유 사장, 朴明基삼양식품사장, 鄭忠一건국유업사장, 金文祚영남우유사장을 선출하고 李興求전무이사는 유임시켰다.

감사에는 吳俊碩비락사장, 李宇宙연세유업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93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금년도 사업계획과 5억1천 2백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신임회장 약력>

●1993년 충남부여생 ●1957년 서울농대 졸업 ●1958년 농림수산부 수습행정관 ●1971년 축산국장, 농학박사취득 ●1976년 식산차관보 ●1984년 농촌경제연구원장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유가공협, 회원사 사장단 간담회
집유질서확립등 당면 현안 협의

한국유가공협회(회장 金榮鎭)는

지난 3월 10일 팔레스호텔에서 회원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 발전방안과 유업계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업계 대표들은 집유질서확립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하고 앞으로 집유선점해업체에 대한 조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협회내에 설치돼있는 집유질서소위원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유제품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앞서 金榮鎭회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全應璜전임회장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국야쿠르트, 영양성분강화 '야쿠르트 에이스' 개발시판

한국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

鮮)는 최근 기존의 액상요구르트보다 영양성분이 한층 강화된 '야쿠르트 에이스'를 개발, 4월 1일부터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은 기존 요구르트에 비해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 칼슘, 비타민C·D등은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용량도 기존 65mg보다 많은 80mg인 야쿠르트 에이스의 병당 권장 소비자가격은 1백80원이다.

롯데, 고품질원유 고온처리한 고급우유 '산록골드' 개발시판

롯데햄·우유(대표 趙東來)는 최근 고품질 원유만을 사용하여 고온 단시간살균처리(HTST)한 고급우유 '산록골드'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롯데햄·우유는 이번 신제품의 경우 품질차별화를 위해 국내 유가공업체로는 처음으로 역삼투압 공정을 거쳐 우유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의 함량을 높이고 유지방을 3.8%로 균일하게 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우·유·광·장

이와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정부의 환경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용기에 부착되는 라벨도 동일한 폴리에틸렌(PE)으로 처리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4백85g은 9백원, 9백70g은 1천6백원.

삼양식품, 대표이사부사장에 안麟洙전무이사를 승진 선임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사장에 안麟洙 전무가 승진선임됐다.

삼양식품그룹(회장 全仲潤)은 3월 22일 주력기업인 주·삼양식품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일부 임원의 인사를 단행, 안麟洙삼양식품 전무를 대표이사 부사장에 승진, 선임하고 朴明基사장을 삼양유지사료 대표이사 사장으로 전보발령 했다.

또 全寅壯삼양식품이사를 동사 경영관리실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한뉴치즈, 자연치즈 3종 발매

매일유업과 뉴질랜드낙농공사간의 합작사인 한국뉴질랜드(한뉴)치즈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치즈 세종류를 개발,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한뉴치즈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슬라이스치즈는 자연치즈를 가열, 가공한 제품이어서 자연치즈와 구분된다고 밝히고 이 신제품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B₂, 칼슘 등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분은 물론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과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인 자연치즈는 맛과 향이 부드러운 '콜비 자연치즈' 저지방, 저칼로리인 '애담 자연치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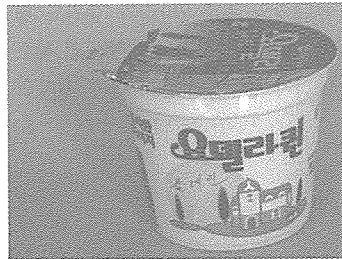
진하고 새콤한 맛이 나는 '체다 자연치즈' 등 3가지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2백g당 3천5백원.

서울우유, 새 호상요구르트 '요델리퀸 플레인' 개발시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趙光鉉)은 최근 호상요구르트인 '요델리퀸 플레인'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서울우유는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 요델리퀸 플레인은 기존의 호상요구르트가 딸기 혹은 복숭아등 과일을



함유하고 있는것과 달리 호상요구르트 본래의 순수하고 담백한 자연의 맛에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변비 설사에 효과가 있어 대장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비피더스균, 아시도필러스

균과 치아건강을 위해 충치예방소재인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성인병 예방과 미용건강에 좋은 식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장가격은 3백50원.

축협 유가공공장 건설계획 서울우유, 백지화 반대서명

서울우유협동조합 전체 대의원 1백27명은 3월 8일 축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공공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축협중앙회에 우편발송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우유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축협중앙회 유가공공장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결의, 이날부터 1주일간 전체대의원 1백27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서울우유 대의원들은 축협중앙회에 발송한 서명부를 통해 「낙농가가 늘지 않는 한 축협중앙회의 유가공공장 건설은 환원유 원료인 분유수입이나 생우수입 결과를 초래해 결국 낙농가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유가공공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그 재원을 업종조합 육성지원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소식

학교급식용 우유가격 인상 2백ml 팩기준 1백70원으로

학교급식용 우유값이 지난 3월 1

일부터 2백ml 팩기준, 종전의 개당 1백60원에서 1백70원으로 6.25%인상됐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공장출고가격으로 적자공급해 오던 유업계외 어려움을 감안, 유통비용 명목으로 이번 신학기부터 개당 10원씩 급식용 우유값을 올려주기로 확정하고 이를 2월중순 교육부와 협의 거쳐 각유

우·유·광·장

업체에 통보했다.

학교급식용 우유값은 92년 9월 개당 1백46원에서 150원으로 오른후 작년 9월부터 1백60원으로 인상됐으나 이는 현행 공장출고가격과 같아 유업계는 유통비용만큼 적자를 감수해왔다.

따라서 유업계는 수차례 공장출고 가격에 유통비용 20원을 감안, 개당 1백8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10원만이 반영돼 여전히 학교급식 우유공급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우유소비량 작년 45kg
10년전에 비해 2.5배나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유소비량은 10년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우유소비량(市乳 및 유가공품 포함)은 45.0kg으로 전년의 43.98kg에 비해 1.02kg(2.3%)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우유소비량은 10년 전인 지난 83년의 18.24kg에 비해 1백47%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우유소비량은 일본의 83kg(92년기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량은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90년대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년에는 원유가격의 인상, 위생등급별 차등가격제 시행 등으로 젖소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우유의 소비량이 작년대비 5.6%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소비량도 전년대비 4.7% 증가한 47.1kg에 달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젖소의 사육두수는 55만3천마리로 92년말의 50만8천마리에 비해 8.9%(4만5천마리)나 증가했다.

**수정란이식 우량젖소 분만결실
연간 산유량 9천2백kg 예상돼**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량 젖소가 우리나라에도 본격 생산되고 있다.

국립종축원은 최근 3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원주군 호저면 주산리 安暢龍씨의 젖소 2마리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金鉤燮씨의 젖소 한마리가 동결수정란 송아지 세마리

를 정상적으로 분만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축원 산유능력이 연간 8천kg이상인 고능력 암소에 능력이 뛰어난 황소의 정액을 인공수정, 동결시킨 후 지난해부터 희망농가의 젖소에 이식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첫 결실을 보았다.

이들 송아지는 어미소가 되면 연간 9천2백kg정도의 우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어미 젖소의 연평균 산유량 6천6백50kg에 비해 38.3%가 많은 것이다.

국립종축원은 지난 해 동결 수정란 2백50개를 생산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농가의 1백66마리에 이식했다.

수정란 이식기술은 1년에 송아지 한마리 밖에 낳을 수 없는 고능력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젖소로부터 수정란을 대량 생산해 농가의 젖소에 많이 이식해 줌으로써 저능력 젖소를 고능력 젖소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스퇴르유업 비방광고 철폐
서울고법, 소보원에 승소판결**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이 최근 파스퇴르유업측에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2부는 1월 11일 소보원이 91년 5월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파스퇴르유업측에 대해 소보원에 5천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 權永泰식품시험실장에게는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보원은 이에앞서 89년에 고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 업무방해죄 형사소송에서도 지난 93년 11월 승소, 민·형사소송 모두에서 승소했다.

소보원과 파스퇴르유업과의 불편한 소송관계는 해묵은 우유의 영양성 논쟁이 발단. 지난 87년 파스퇴르유업이 저온살균방식우유라는 점을 내세워 기존의 고온살균 방식우유업체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업체가 한참 자신들의 우유가 더 낫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인 89년 소보원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두가지 살균방식의 우유 영양성을 시험한 것이다.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났고 이에 파스퇴르측이 소보원에 대해 특정업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나섰다.

결국 소보원은 이같은 비방광고가 나간지 한달후쯤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벌였고 그 결과가 이제서야 판정난 것이다.

**젖소등 주요가축 專業化현상
농수산부, 93년 12월기준 조사**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육가구는 감소하는 이른바 축산업의 專業化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9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발표한 전국 주요가축 사육실태에 따르면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2만8천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2백50여가구가 줄었으나 사육두수는 55만3천마리로 4만5천마리(8.9%) 늘어났다.

그 결과 젖소의 가구당 사육두수는 19.8마리로 전년동기의 18.1마리에 비해 1.7마리, 90년보다 4.5마리 각각 증가했다.

한우는 사육농가가 57만가구로 1년전보다 1만5천가구가 줄었으며 사육 두수는 2백26만마리로 24만2천마리(12.0%)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구당 사육두수는 4.0마리로 전년동기의 3.5마리에 비해 0.5마리, 90년의 2.6마리보다는 1.4마리가 각각 증가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7만가구로 1년전보다 2만9천가구가 줄었으며 사육두수는 5백92만8천마리로 46만5천마리(8.5%)가 늘었다.

따라서 돼지의 가구당 사육두수는 84.7마리로 전년동기의 55.2마리에 비해 29.5마리, 90년의 34.0마리보다

각각 증가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소, 돼지의 경우 육류소비량의 증가와 가격호조에 따라 사육마리수가 늘어났으나 영농기계화, 축산폐수처리시설 의무화 등으로 영세한 사육농가가 줄어들면서 전업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닭은 사육농가가 늘어난 반면 사육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19만2천가구로 전년동기에 비해 4천가구가 늘었으나 사육두수는 7천2백94만5천마리로 37만9천마리(0.5%)가 줄었다.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축산專業농가의 가구당 사육두수를 한우는 50마리이상, 젖소는 40마리내외, 돼지는 5백~2천마리, 닭 3만마리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한우는 오는 98년까지 專業農 1만4천가구에 한우단지 1백50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이들 농가에는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등에 90%까지 소요자금을 보조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용자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로, 유기공사업 수농에 매각
유기공협 회원자격 상실 탈퇴**

진로종합식품(대표 장건용)은 최근 유기공사업부문을 金호연(주)빙그레회장이 설립한 (주)수농에 매각했다.

진로는 이에 따라 한국유기공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 탈퇴했다.

따라서 유기공협회 회원수는 15개사로 줄었다.